

## 이중점화기법을 통해 본 남녀 대학생의 '성공/실패'에 대한 암묵적 표상

조 혜 자 방 희 정\* 조 숙 자 김 현 정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연합된 성공/실패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어머니/바구니와 성공/실패를 이중점화자극으로 100ms 동안 제시하고 난 뒤, 150ms 후(SOA 250ms)에 수용/거부와 관련된 목표자극(probe)을 제시하고 어의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조건에 대한 반응이 통제조건보다 빨랐으며, 수용에 대한 반응이 거부 반응보다 빨랐고, 여자집단의 반응이 남자보다 빨랐다. 연구 2에서는 남녀별로 애착 고집단과 저집단을 나누어, 어머니와 성공/실패를 이중점화시킨 뒤 수용/거부에 대한 어의판단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성공/실패와 수용/거부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 성공-수용에 대한 반응은 가장 빨랐고, 실패-수용, 실패-거부, 성공-거부의 순으로 반응이 느려졌다. 한편 남자집단에서는 애착고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자집단에서는 3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여자 애착 고집단에서는 성공-수용, 성공-거부에 대한 반응차이가 크지 않았고, 실패-거부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느렸으나, 여자 애착 저집단에서는 성공-수용은 매우 빠르는데 비해 성공-거부는 매우 느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긍정성 및 성별,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성공/실패 도식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유형, 성공/실패 도식, 어의판단과제, 자기 긍정성, 이중점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연구에 도움을 준 이재호 교수와 노경란 선생, 이화여대 발달연구팀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동 11-1

E-mail: hjbang@ewha.ac.kr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이들의 이야기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성공에 이르게 만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성공 스토리는 당사자의 과거를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삼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러나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취나 성공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노력은 했지만 자신의 목표나 주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인생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입시나 취업,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다고 해서 미래에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성취나 성공의 목표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목표수준이 낮은 경우에 성취로 경험되는 것이 높은 목표수준에서는 실패로 경험될 수도 있다.

한국은 성취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회이다. 성공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하다. 실패는 기회의 박탈과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개인의 목표나 기대를 수정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구재선과 김의철(2006)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행복과 불행은 유발하는 일상생활 경험은 성취와 실패경험이었다.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 개인적 목표나 소망의 달성, 또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대리적 성취가 행복 경험으로 이어졌지만, 반면 학업과 직업에서 실패했던 순간은 매우 불행했던 경험으로 기억되고, 가족의 실패도 강한 불행으로 기억되었다.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5)은 이러한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토착심리의 일부로 보고 있다.

최근의 몇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성공지향적인 성향과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Yu와 Yang(1994), Kim과 Park(2003)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이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이러한 것이 교육열로 나타나고, 자녀의 성취동기로 이어짐을 밝히고 있다. 즉 개인의 성공과 성취지향성은 부모의 성취기대,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적이며, 어머니가 양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공, 실패에 대한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교류모델에 기초한 모자간 상호의존성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에게 상호의존적 동일시를 형성하고, 자녀를 확대된 자기로 생각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희생에 보답하도록 자녀의 행동을 동기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영신과 김의철, 2003). 이런 관계구조에서는 자녀의 성취는 어머니의 성취감이 되고, 따라서 어머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영신 등(2005)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취업과 학업성취를 소망하면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부모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성취만을 강조하고 실패에 너그럽지 않다면 성취기대나 지원은 압력으로 작용하여, 자녀들은 실패 시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일탈행동이나 포기, 또는 자살시도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은 명시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이전의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의식수준에서부터 활성화되어, 젊은이들의 사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표상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열려 있으면

서도, 어머니의 성공기대에 따르는 반응을 강하게 반복 학습해 온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성공/실패, 수용/거부가 어떤 연합망으로 표상되어 있다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점화(priming)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어머니의 승인과 지지

애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과정에서 생존과 생식,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육자에게 애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Bowlby (1982)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지적이고 위안을 주며 보호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애착체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애착체계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상과 근접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닌 체계로서 특히 놀라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아플 때 활성화되어 애착대상에게 보호와 지지를 받고자하는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개인은 이렇게 애착대상과 근접상태를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그 대상과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 작동모델은 생애 첫해에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반복되는 학습의 결과로 아동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주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등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적 작동모델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바뀌어 애착체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애착체계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에도 그 중요성이 유지되어 또래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직업적 자기 효능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Paterson, Pryor, & Field, 1995).

애착이론가들은 아동이 어머니의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초기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지를 지적해 왔다. 온정적이며, 자신을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부모를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여기며 자기에 대한 작동모델을 형성하지만, 반면 거부당하거나 지지받지 못하거나 잦은 애착 실패를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Harter(1998)는 자신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주도성을 지지해 주는 부모를 경험한 아동은 유능한 자기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평가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또래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인정은 여전히 청소년의 자존감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심리역동 이론가들이나 자기(self) 이론가들도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왔다. Winnicott(1965)는 충분히 좋은(good enough) 어머니 역할이 자녀의 건강한 자기발달을 촉진함을 강조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란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전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전능감은 자녀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자기감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Baldwin(1992)은 자기감은 대부분 애착의 느낌을 제공하는 관계나 관계적 패턴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행동의 기준을 학습하고,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와 '당위적인 자기(ought self)' 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나 부모가 주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라는 기대 메

시지는 강한 이상적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한다. '이상적인 자기'는 희망과 바램, 열망 등과 관련되는 자기의 부분이다. 반면 '당위적 자기'는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통해 형성되며,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다. 즉 자녀의 성취를 열망하는 어머니의 성취기대와 관련된 승인과 지지는 자녀의 이상적 자기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보이는 반응의 압력은 자녀의 당위적 자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가혹한 훈육, 지적인 자극, 교육에 대한 가치 등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uston & Ripke, 2005). 즉 이상적 자거나 당위적 자기상의 규준은 승인과 만족 뿐 아니라, 거부, 상실과 같은 심리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규준과 일치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게 된다(Baldwin, 1992).

#### 애착 활성화

Bowlby(1982)는 맥락이 애착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았다. 아동은 자기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아플 때, 즉 신체적, 심리적 위협에 당면했을 때 자동적으로 애착체계를 활성화시켜, 애착인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체계의 활성화는 성인기에도 나타나, 위기상황에서 불안감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Bowlby, 1973). 애착의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과학습되어 인지체계 내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 인물이 활성화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여과되어 처리될 수 있다.

McGowan(2002)은 성인기에도 이러한 인지적

안전기지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긴장되는 상황에서 애착인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덜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는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과제를 기다리는 동안 유의미한 타인이나 혹은 아는 사람을 상상하고 기술하게 한 다음, 스트레스 과제를 풀게 했다. 결과, 유의미한 타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자기모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걱정수준을 낮추었지만, 부정적인 자기모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걱정수준을 높였다. Mikulincer와 Arad (1999)는 애착 작동모델의 만성적, 또는 일시적 활성화가 인지적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 관계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긍정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인지적 개방성이 높아지고 기대 불일치 정보에 대한 회상률이 높아졌다. 한편 기질적인 애착 안정성이나 실험실에서 증진된 애착 안정성이 인지적 개방성과 공감능력을 촉진시키고, 자기초월적 가치를 강화하며, 외집단 성원에 대한 인내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ikulincer 등, 2005). 즉 애착안정성을 증가시키면 안전감(safety)과 자기-가치(self-worth)의 느낌을 갖게 하므로, 이기적인 동기 없이 동정심(compassion)과 도움을 유발할 수 있었다.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억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Main(1990)은 성인의 애착행동체계의 일차 방략과 이차 방략을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차방략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애착대상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인 반면, 이차방략은 일차방략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 도입되는 것으로서, 애착체계를 비활성화(deactivation)시키거나, 아니면 과활성화(hyperactivation)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rrison, Goodlin-Jones 및 Urquiza

(1997)는 애착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애착 활성화가 높은 경우 상호작용을 보다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비활성화와 과활성화 방략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Main, 1990). 즉 회피유형의 사람들은 애착체계를 비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양가유형의 사람들은 과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Mikulincer와 Shaver(2004)는 애착체계 활성화와 기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의 신호가 있을 때, 애착체계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활성화는 내면화된 애착대상을 탐색하거나, 안정기반적인 자기표상을 탐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만족이 되면 안정을 얻고 불안이 감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안정하고, 불안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따라서는 애착대상을 탐색하지 않고, 안정기반적 자기표상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나 연구들은 애착대상이나 애착체계의 활성화가 애착유형이나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대상은 인생초기부터 관계를 맺어온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개인의 자기(self)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최근의 관계적 자기 이론에 비추어 애착활성화 현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hen, Boucher 및 Tapias(2006)는 관계적 자기의 연구들을 개괄하여,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기억 속에서 연결된 자기지식으로서, 중요한 타인과의 맥락에서 경험한 속성과 역할에 기반한 자기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중 관계 특수적(relationship-specific)인 관계적 자기는 중요한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로서, 규범적 역할과 개별속성, 정서적 요소, 목표, 동기, 자기조절 전략, 행동 전략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적 자기는 맥락적으로 활성화되는데, 개인이 당면한 현재의 맥락이나, 함께 하는 대상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표상들 중 특정 측면만이 활성화되어 활동과 반응을 조절하게 된다. 이를 Markus 등(1990)은 작업 중인 자기 개념(working self-concept)으로, Baumeister(1998)는 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로 불렀다.

이와 관련하여, Baldwin 등(1999)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때에만 수용되고, 실패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받는 등, 조건적인 지지만을 받아온 개인의 경우, 사회적 정보처리를 if-then 식의 조건적 맥락에서 처리하며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들은 성공적인 수행을 할 때에만 조건적인 수용을 받은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불안하며, 우울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고 밝혀 왔다. 또한 조건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수용과, 실패를 거부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win & Sinclair, 1996).

애착이론과 관계적 자기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취지향적인 우리 문화에서 애착대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였는지, 또는 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는지에 따라 애착활성화 양상은 다를 것이며, 이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점화실험

과거 경험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행동과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어떤 자극을 접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이전 단계부터 사고가 신경학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는 정신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보통 자기보고나 내성을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기보고로 알아내기 어려운 암묵적 인지는 직접적인 측정보다는 점화기법과 같은 전의식적(subliminal)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다. 점화(priming)는 기억이나 지식이 연합망으로 저장되어 있고, 관련된 정보들은 가까이 저장되어 상호 연결된 의미망을 통해 활성화가 확산된다는 것을 가정한다(Neely, 1991). 따라서 의미있는 어떤 단어나 자극(점화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후속 단어나 자극을 제시하면, 앞 자극의 점화효과로 인해 의미처리가 빨리 일어나게 된다(이정모 외, 2003). 점화는 자동적 과정과 통제적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점화자극과 목표자극 간의 차이(SOA)가 250ms 이내에서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점화기제가 작용하고, 500ms 이상에서는 통제적이고 전략적인 점화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ereno & Rayner, 1992).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식도 일반지식처럼 연합망 체계로 표상을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고정관념과 자기 존중감, 대인관계, 거부민감도 등은 자신이 통제하기 이전의 의식수준에서부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 점화기법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Baldwin 등(1990)은 관계도식의 전의식적인 점화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의 실험에서는 중요한 권위자(주임교수)의 불승인(노려봄)의 역하 점화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유발하였다. 또한 Glassman & Andersen(1999)은

컴퓨터게임을 하는 동안 중요한 타인의 특징을 전의식 수준에서 제시한 결과, 게임 파트너에게 중요한 타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이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했다. 즉 대인관계적 자기(interpersonal self)가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yduk 등(1999)은 거부민감도가 높은 개인이 갖는 방어적인 스크립트를 점화기법을 통해 조사했다. 그 결과, 거부민감도가 높은 여성들은 거부와 관련된 단어들로 점화를 시켰을 때, 적개심과 관련된 단어를 더 빨리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어의 점화는 개인들이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불안정한 경험을 유도해내고 방어적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는 거부와 적개심이 연합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었다.

Mikulincer와 그 동료들은 Bowlby(1982)가 제안한 애착체계의 기능과 관련해서, 맥락이 애착체계를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애착체계의 내적 작동모형을 점화기법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애착체계 활성화가설을 위협 맥락에서 측정하고자 한 연구(Mikulincer 등, 2000)에서는 위협관련 단어나 중립단어를 역하수준에서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 ‘근접’이나 ‘염려’와 관련된 단어의 어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위협단어로 점화되었을 때, ‘근접’과 관련된 단어(사랑, 근접)의 파악이 더 빠르며, 다른 긍정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위협 맥락에서 애착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안정 애착인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특히 위협상황에서 분리나 거부와 같은 ‘염려’를 함의하는 단어에 대해서 반응이 유의미하게 느렸다. 이러한 현

상은 안정애착인의 경우 긍정적인 애착 경험으로 인해 의미기억 내의 애착체계와 거부나 분리와 같은 개념 간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후 Mikulincer, Hirschberger, Nachmias 및 Gillath(2001)는 정서적 점화절차를 사용하여, 애착 안정성과 관련된 표상의 활성화가 긴장 맥락과 중립적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애착 안정성을 역하수준에서 그림으로 점화시킨 후, 타인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동정심으로 반응했던 개인적 에피소드를 회상하게 하는 문장을 읽게 한 후에, 개인적 에피소드를 인출했는지 여부를 키를 눌러 반응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애착 안정적 표상의 역하 점화가 참가자들의 공감적 에피소드 인출을 촉진하였으며, 긴장 맥락에서 자극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이끌어내었다. 반면 애착과 무관한 표상의 점화는 그 내용이 긍정적일지라도 긴장 맥락에서 긍정적 정서를 일으키지 못했다.

2002년도 연구에서는(Mikulincer, Gillath, & Shaver, 2002) 신체적 심리적 위협이 자동적으로 애착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애착대상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들은 위협 단어를 점화하면 애착대상에 대한 표상이 활성화될 것이며, 활성화 정도는 애착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WHOTO 척도를 사용하여 애착대상 이름을 명명하게 한 후, '위협'과 관련된 단어(실험 1)나 '분리'와 관련된 단어(실험 2)를 역하수준에서 점화(prime)자극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애착대상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 또는 비단어를 제시하고 어의 판단을 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위협 점화가 애착대상을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위협단어의 점화는 애착대상 이름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켜 빠른 반응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이러한 촉진효과는 불안정 애착인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어의판단과제에서 뿐 아니라 STROOP과제를 사용했을 때(실험 3)에도 나타났다.

애착체계는 위협맥락에서 활성화된다는 이론적인 근거 때문에, Mikulincer 등 많은 연구자들은 위협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위협의 종류에 따라 어떤 위협자극은 애착체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Main(1990)의 지적처럼 애착체계를 비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실패의 위협은 애착유형에 따라 애착대상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비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애착대상을 목표자극으로 어휘판단을 시키기 보다는 애착대상을 활성화시킨 후 다른 목표(probe)자극을 통해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Baldwin 등(1996)은 참여자들에게 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유의미한 타인이나 무조건적 수용을 하는 타인을 시각화(visualize)시킨 뒤, 애착과 관련된 관계도식이 if-then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는 요소들 간에 자동적인 활성화 확산(spread of activation)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if의 맥락(예. 성공 또는 실패)을 표상하는 마디와 then 결과(예. 수용 또는 거부) 간의 연결망을 알아내기 위해, 성공이나 실패를 점화시킨 맥락에서 거부와 수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목표단어로 어의판단을 하게하고, 그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조건적인 관계를 시각화한 조건에서는 실패의 활성화는 거부에 대한 반응을 촉진했고, 성공은 수용에 대한 반응을 촉진하였다. 이 결과는 조건적인

지지가 성공-수용, 실패-거부의 if-then 연합망을 형성시켰다고 해석되었다.

이후 Baldwin과 Meunier(1999)는 애착유형에 따라 조건적인 관계나 무조건적인 관계가 성공, 실패 맥락에서 수용, 거부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점화기법과 더불어 고전적 조건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무조건적 지지를 받는 대상을 시각화하게 하면서 소리를 조건 자극(CS)으로 제시하여, 대상과 소리를 연합시키는 조건화를 시켰고, 다른 집단에게는 조건적 지지를 받는 대상을 시각화하면서 소리를 CS로 조건화시켰다. 이후 성공 실패와 관련된 단어들을 점화 자극으로 700ms 동안 보여준 후, 수용과 거부 단어를 제시하고 어의판단을 시키면서 동시에 CS인 소리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적 관계로 조건화된 경우라도 애착유형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는데, 특히 불안정 애착인 경우 거부 활성화가 두드러졌고, 안정 애착인들은 수용 활성화가 두드러졌다.

관계도식이나 거부민감도, 애착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된 이상의 점화연구 결과들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와 같은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성공은 수용과 연결된 사건이지만, 실패는 거부와 연결될 수도 있는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열심인 어머니들의 기대를 받고 자라온 대학생들에게 어머니는 조건적 지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인 동시에, 무조건적 지지를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활성화된 맥락에서 성공/실패가 점화될 때, 수용/거부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kulincer등과 Baldwin등의 실험에서는 애착대

상을 맥락화시키기 위해 개인마다 다른 애착 대상을 시각화 시키거나, 고전적 조건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개인화된 기법은 개인차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중점화 기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Calvo와 Castillo(2005)는 컴퓨터 화면의 중심와(fovea) 부분과 부중심와(parafovea) 부분에 이중으로 위협단어들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난 후 목표(probe)단어에 대한 어의판단을 시킨 결과, 점화와 목표와의 지연시간(SOA)이 300ms인 경우에 모두 점화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중점화기법이 복잡한 실험 패러다임을 단순화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자동적 점화기체가 250ms 이내에서 작용한다(Sereno & Rayner, 1992)는 점을 고려하여 SOA를 좀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점화를 SOA 250ms 수준에서 사용하여, 애착체계와 성공 실패의 동시 점화가 수용 및 거부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어의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연구 1

본 연구는 애착체계가 활성화된 맥락에서 성공과 실패의 점화가 수용/거부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중점화기법을 사용하였다. 애착체계의 활성화 맥락을 조작하기 위해 실험조건으로 ‘어머니’가, 통제조건으로 ‘바구니’가 하나의 점화조건으로 사용되었고, 더불어 성공과 실패의 점화조건으로 ‘성공’이나 ‘실패’와 관련된 단어들이 또 하나의

점화자극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이중점화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용' 및 '거부'와 관련된 단어들과 비단어들을 목표단어(probe)로 제시하고 어의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애착체계의 활성화는 수용과 거부 단어 어의판단에 영향을 미쳐, 통제조건과 차이를 보이는가?
2. 성공/실패점화는 수용/거부와 관련된 단어 어의 어의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애착활성화 여부는 성공/실패점화시의 수용/거부 어의판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4. 수용/거부 어의판단에 성별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참가자

남녀 대학생 5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3세 이었고, 이중 28명은 어머니 맥락조건에, 27명은 비교집단인 바구니 맥락조건에 배정하였다.

### 실험설계

이 연구는 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변인이 하나이었으며(맥락조건) 피험자내 변인이 두 개이었다(점화조건과 목표자극조건). 맥락조건은 '어머니' 혹은 '바구니' 조건으로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점화조건은 '성공'과 '실패', 목표자극(probe) 조건은 '수용'과 '거부' 조건으로, 두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DV는 목표자극

에 대한 어의판단에 걸리는 시간(ms)이었다.

### 실험재료

12명의 대학원생들과 4명의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성공/실패와 관련된 단어를 각각 12개씩, 수용/거부와 관련된 단어를 각각 12개씩 선정하였다. 점화는 이중점화조건으로, 두 가지 점화자극을 쌍으로 제시하였다. 그중 맥락점화자극은 '어머니'나 '바구니'였고, 피험자 간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점화자극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성공'이나 '실패'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어의판단을 하기 위한 목표자극으로는 '수용'과 '거부'와 관련된 단어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피험자 내 실험 조건은 점화-목표자극 쌍이 성공-수용, 성공-거부, 실패-수용, 실패-거부인 네 조건이었다. 참가자는 맥락단어 어의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네 조건의 24개의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었다. 한편 실험조건과는 독립적으로 어의판단 과제의 '아니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통제조건을 구성했으며, 실험재료와 무관한 단어와 비단어를 점화-목표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아니오' 반응을 위해 24개의 자극쌍을 구성했으며 실험조건과 혼합시켜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재료는 위의 실험조건을 라틴방형으로 순서를 조작하여 모두 8개의 유형으로 만들었다. 참가자는 먼저 어머니나 바구니 맥락 점화조건에 할당한 뒤, 8개의 유형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고, 점화조건과 목표조건을 반영한 48쌍의 점화-목표 자극에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맥락점화자극:** 어머니 vs. 바구니

**점화자극:**

실패(12) - 무능, 좌절, 패배, 탈락, 실패, 패자, 열등, 낙방, 낙담, 불합격, 실업, 낙제

성공(12) - 성취, 우승, 성공, 승진, 우등, 우수, 일등, 유능, 당선, 합격, 취업, 승리

중립자극(24)

**목표자극:**

수용(12) - 수용, 허락, 허용, 인정, 찬성, 동의, 존중, 포용, 관심, 환영, 칭찬, 긍정

거부(12) - 거절, 거부, 반대, 배척, 처벌, 비난, 경멸, 무관심, 미움, 배신, 무시, 배반

비단어(24)

**실험절차**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실험의 목적을 간단히 기술한 다음, 실험절차에 대한 지시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지시에 따라 반응을 하게 하였다. 먼저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 표시를 750ms 동안 제시하여 주의를 두게 하였다. 그 다음 이중 점화자극이 중앙과 오른쪽의 위치에 제시되었다. 오른쪽에는 맥락자극(‘어머니’나 ‘바구니’)이 제시되었고, 중앙에는 주 점화자극들(‘성공’ 또는 ‘실패’)이 제시되었다. 즉 주 점화단어는 '\*\*\*\*'가 제시된 위치에 제시되었으며 맥락단어는 그 단어의 우측에 제시되었다. 두 단어가 제시되는 시간은 100ms이었으며 그 단어들이 사라진 150ms 후에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점화-목표 자극은 SOA 250ms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는 자극이 제시되었는지 확인만 하도록 하였고, 목표단어가 제시될 때 그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 있는 단어인지 의미 없는 비단어인지를 빠른 속도로 어의판단(lexical decision)하게 하였다. 만약 그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이면 '예 (/)'키를 누르고, 아니면 '아니오('z')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반응키를 누르면 목표단어는 사라지고 1000ms 가 지연된 후에 다시 '\*\*\*\*' 표시가 화면에 제시되고 같은 시행을 반복하게 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는 고딕체이었으며 한 글자의 크기는 가로 0.7cm, 세로 1.0cm 이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컴퓨터 모니터에서 50cm 정도 떨어지게 하였다. 실험 자극이 두 글자인 경우에 가로는 약 1.5cm 이었다. 실험재료는 대부분이 2글자이었기 때문에 점화자극의 시각은 2도이었으며 중심와(시각 2도)에 떨어졌다. 맥락자극은 점화자극으로부터 우측으로 2cm(2.5도) 떨어진 위치에 제시하였다. 맥락자극은 3글자이었기 때문에 시각은 2.5도이었다. 점화자극에 비해서 맥락자극은 약 5도의 시각 차이가 있었다. 이 각도는 중심와 부근에 해당한다. 중심와 부근의 시각이 4-6도 임을 고려하면 맥락자극은 시각의 점화효과가 나타나는 경계 각도에 해당한다(예. Pollatsek & Rayner, 1989). 연습시행은 각 참가자 당 1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OS는 DOS 6.22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Quick Basic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IBM-PC 호환 기종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점화자극이나 맥락점화자극을 인식하였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가 무슨 자극이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결 과**

맥락자극인 어머니와 바구니 점화는 집단

간 변인으로, 점화조건(실패와 성공)과 목표 자극 조건(수용과 거부)는 집단 내 변인으로 2\*(2\*2)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맥락 집단 간 차이는 약하게 나타나  $F(1,51)=3.64$ ,  $p=.06$ , 어머니조건의 반응이 바구니 조건보다 빨랐다. 한편 목표자극(수용과 거부)의 주 효과가 나타나,  $F(1,53)=10.65$ ,  $p<.001$ , 수용에 대한 반응이 거부의 반응보다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의 점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점화자극과 목표자극간의 상호작용도 없었고, 점화맥락과 목표자극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삼원 상호작용도 없었다. 한편 성별을 넣고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성별 주효과가 나타나,  $F(1,51)=6.46$ ,  $p<.01$ , 여성의 반응이 남성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남자평균: 753.93, 여자평균: 619.00).

어머니 맥락조건과 바구니 맥락조건의 반응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바구니 맥락의 반응이 늦게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어머니 점화맥락의 조건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반응이 빨랐는데, 이는 애착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반응 민감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구니

조건에서는 성공 실패의 점화여부와는 상관없이 목표자극인 수용, 거부에 대한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어머니 맥락조건에서는 성공 실패와 관련된 점화가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애착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바구니 맥락에서는 수용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거부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자동적인 자기 긍정성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점화맥락은 애착체계의 활성화로 보다 복잡한 반응 패턴을 보인 것 같다. 특히 실패-거부에 대한 반응은 어머니 점화 맥락에서 바구니 점화맥락보다 빨랐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보여온 조건적 지지 때문에 형성된 연합망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 점화맥락의 복잡한 반응패턴은 이 실험에서 고려하지 않은 애착유형과 같은 개인특성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녀의 차이는 왜 비롯되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성별과 개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애착 활성화 맥락에서 성공-실패의 점화가 수용-거부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표 1. 이중점화 조건에 따르는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ms)과 표준편차( )

점화-목표	어머니 점화맥락(n=28)	바구니 점화맥락(n=27)
성공-수용	615.27(157.33)	656.87(162.06)
성공-거부	686.69(250.64)	708.16(217.28)
실패-수용	644.40(154.00)	653.15(145.18)
실패-거부	648.09(159.42)	719.40(233.22)
평균	648.61(180.34)	684.40(189.38)

## 연구 2

연구 1에서는 애착활성화 조건인 어머니 점화맥락과 통제조건인 바구니 점화맥락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며, 바구니 점화맥락은 목표자극에 대한 효과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반면 어머니 점화맥락은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에 대해 복잡한 반응패턴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그 유형과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 어려웠다.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애착점화에 따르는 반응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본다면(Mikulincer 등, 2001, 2002), 애착유형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성별효과는 왜 비롯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성별과 애착유형에 따라 성공-실패의 활성화가 수용-거부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유형을 나누고 두 집단에게 모두 어머니를 점화맥락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성공-실패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하고, 목표자극인 수용-거부 단어들에 대한 어의판단에 걸리는 반응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애착체계의 활성화가 수용과 거부 단어 어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2. 애착유형은 애착체계 활성화 상황에서 성공/실패점화시의 수용/거부와 관련된 단어의 어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애착유형이 애착체계 활성화 상황에서 성공/실패점화시의 수용/거부와 관련된 단어의 어의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 방 법

### 참가자

18-36세 사이의 남녀 대학생 9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남성은 44명, 여성은 4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25세이었다.

###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성별(남/여)과 애착유형(안정/불안정)이 피험자 간 변인이었으며,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점화자극(성공/실패)과 목표자극(수용/거부)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따라서 연구2는 2\*2\*(2\*2) 혼합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 실험재료 및 절차

참가자들에게 실험 후에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검사를 실시하였다. IPPA는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뢰, 의사소통, 소외를 다루는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정(1997)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애착만을 측정하였다. 애착검사는 실험 전에 실시할 경우, 검사 자체가 점화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이후에 실시하였다. 애착검사를 실시한 점과 맥락점화자극이 어머니 하나인 점을 제외하고는 실험의 재료와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다.

**결 과**

IPPA 어머니 애착검사 결과를 중앙치 분할법을 사용하여 상위점수에 속하는 45명(남자 22명, 여자 23명)은 애착-고 집단, 하위점수에 속하는 45명(남자 22명, 여자 23명)은 애착-저 집단으로 배정했다. IPPA 어머니 애착검사 신뢰도는 .89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애착 고-저집단(2)과 남녀(2)를 피험자 간 변인으로, 점화자극(2 성공/실패)과 목표자극(2 수용/거부)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2\*2\*(2\*2)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참가자들이 점화자극으로 활성화된 조건에서 목표단어에 반응한 시간은 표 2와 같다. 4원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표단어(수용/거부)에 대한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나,  $F(1,86)=9.45, p<.01$ , 수용에 대한 반응이 거부에 대한 반응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 이는 연구 1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거부보다는 수용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성이 어의판단과제를 통해 보여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점화(성공/실패)와 목표단어(수용/거부)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F(2,85)=4.32, p=.04$ , 성공-수용에 대한 반응은 가장 빨랐고, 실패-수용, 실패-거부, 성공-거부의 순으로 반응이 느려졌다. 성공에 대해 수용되는 것은 반복 학습되어 강한 연합망으로 표상되어 있지만, 특히 성공과 거부의 연합은 다른 연합보다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점화(성공-실패)와 성별간에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F(2,85)=3.14, p=.08$ , 이는 남자의 경우 성공에 대한 반응이 실패보다 느린데 비해(721.07 vs. 705.74), 여자의 경우 성공에 대한 반응이 실패보다 빨랐기 때문이다(645.14 vs. 674.12). 한편 점화(성공/실패)와 목표단어(수용/거부), 성별, 애착고저집단 간의 4원 상호작용이 약하게 나타났다  $F(4,83)=2.96, p=.09$ . 즉 애착고저집단간의 반응패턴의 차이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남녀를 분리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남녀 애착 고저집단의 점화조건에 따르는 목표단어에 대한 반응시간과 표준편차( )

점화-목표	남자(44명)			여자(46명)			합계(90명)		
	애착-고 (22명)	애착-저 (22명)	계 (44명)	애착-고 (23명)	애착-저 (23명)	계 (46명)	애착-고 (45명)	애착-저 (45명)	계 (90명)
성공-수용	699.26 (181.51)	673.89 (128.30)	686.17 (155.90)	621.22 (117.58)	603.11 (183.63)	612.17 (152.74)	659.37 (155.54)	637.33 (161.15)	648.35 (157.86)
성공-거부	777.82 (316.11)	734.11 (165.06)	755.96 (250.19)	652.34 (148.59)	703.91 (340.52)	678.12 (261.08)	713.68 (250.51)	718.67 (266.86)	716.18 (257.37)
실패-수용	724.78 (223.95)	678.09 (119.81)	701.44 (179.06)	645.14 (113.99)	665.81 (253.90)	655.48 (194.88)	684.08 (179.04)	671.82 (197.80)	677.95 (187.69)
실패-거부	711.01 (308.30)	698.09 (154.89)	710.05 (241.42)	701.79 (163.87)	683.71 (300.48)	692.75 (239.48)	711.67 (242.68)	690.74 (238.00)	701.21 (239.23)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을 분리하여 3원 변량 분석을 한 결과, 남자집단에서는 목표자극(수용/거부)에 대한 주효과가 .07수준에서 나타나  $F(1,42)=3.50, p=.07$ , 수용에 대한 반응이 거부 반응보다 빨랐다. 한편 점화(성공/실패)와 목표(수용/거부)간의 상호작용효과도 .08수준에서 나타나  $F(1,42)=3.20, p=.08$ , 성공-거부에 대한 반응이 다른 조건에 비해 느렸다. 그러나 애착고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3원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자 집단에서는 목표(수용/거부)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나  $F(1,44)=6.16, p=.02$ , 수용에 대한 반응이 거부에 대한 반응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다. 3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44)=4.09, p=.05$ . 점화(성공/실패)의 주효과가 .09 수준에서 있었으나  $F(1,44)=2.95, p=.09$ , 목표(수용/거부)와 점화(성공/실패)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3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보자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성공 점화시 수용에 대한 반응은 애착 저집단이 고집단보다 빨랐지만, 실패 점화시 수용에 대한 반응은 애착 고 집

단이 애착 저 집단보다 빨랐다. 이는 애착 고 집단은 성공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수용과 지지를 받아왔지만, 애착 저집단은 성공시에만 수용되고 지지받는 조건적인 지지를 경험해 왔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공 점화시 거부에 대한 반응은 애착 고 집단이 애착 저집단보다 빨랐으며, 실패 점화시 거부에 대한 반응은 애착 저 집단이 빠르고 애착 고 집단은 느렸다. 즉 애착 고집단은 성공 점화시 수용과 거부에 대한 반응차이(31.12)가 애착 저집단(100.80)에 비해 크지 않았다. 반면 실패 점화시 애착 고 집단은 수용에서는 반응이 빠르고 거부에 대해서는 느린 반응을 보여 반응차이가 컸지만(66.65), 애착 저집단에서는 수용에 대한 반응과 거부에 대한 반응차이가 크지 않았다(18.90). 전체적으로 애착 고저집단 모두 성공-수용의 연합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합이 어려운 반응은 애착 고집단에서는 실패-거부이었지만, 애착 저집단에서는 성공-거부의 연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애착유형에 따라 성공과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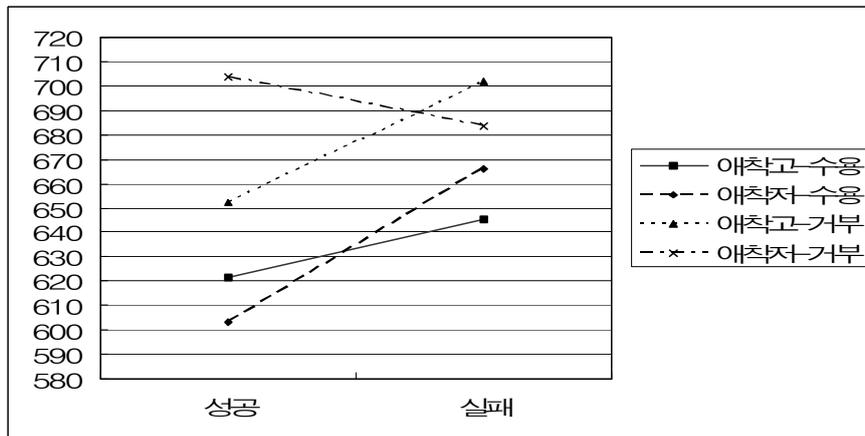


그림 1. 여자 애착 고저 집단의 성공 실패점화시의 수용, 거부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

패에 대한 수용, 거부 경험을 다르게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논 의

### 자기 긍정성

연구 1과 2를 통해 전체적으로 목표자극인 '수용'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반응이 '거부' 관련 단어들에 대한 반응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대우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기 긍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W. James(1890)는 이런 동기를 자애(self-love)라고 불렀고, Greenwald(1980)는 자기고양주의(beneffectance)라고 보았다. 또한 Rogers(1961)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로 인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취를 강조하게 되고, 자존감과 자기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 착각현상(positive illusion)으로 나타나기도 하고(Alicke, 1985), 자기귀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Greenwald, 1995), 내 집단 선호로 표현되기도 하였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또한 자기 긍정성은 암묵적인 태도검사(IAT)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Greenwald와 Farnham(2000)이나 조혜자와 방희정(2004)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들도 자기 긍정성이 고정관념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함을 밝혀내었다. 즉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으로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런 경향성이 연구 1과 2의 수용에 대한 빠른 반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머니와 연합된 성공/실패 도식의 구조

연구 2에서는 성공/실패와 수용/거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성공-수용의 연합에 대한 반응이 가장 빠르고, 성공-거부의 연합에 대한 반응이 실패-수용이나 실패-거부보다도 느렸다. 이런 현상은 어머니와 연합된 성공/실패 도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취지향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신의 분신, 또는 확장된 자기라고 지각하고, 자녀들에게 대리적 성취를 강요할 수 있다. 이런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양식은 학업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Kim & Park, 2003).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성공 시에는 수용하지만, 실패 시에는 거부하는 조건적 지지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성취를 향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주는 무조건적 지지를 보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애착인물의 조건적 지지는 성공-수용, 실패-거부의 연합으로 표상되고, 무조건적 지지는 성공-수용, 실패-수용의 연합으로 표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자면, 어머니로부터 조건적 지지를 받아온 경우나 무조건적 지지를 받은 경우 모두 성공-거부 연합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연합인 것이다. 따라서 성공-수용은 매우 빠르지만, 성공-거부의 반응은 실패-거부나 실패-수용보다도 더 느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개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성공을 했음에도 거부를 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남자 대학생의 어머니 애착과 성공/실패도식

연구 1과 연구 2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성공이 점화되었을 때의 반응이 실패 점화보다 빠르지 않지만, 여자의 경우 성공 점화에 대한 반응이 실패 점화보다 빨랐다. 이 결과는 남자들의 경우 애착 고저집단에 상관없이 모두 성공-거부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느렸는데, 여자들은 애착 고집단은 성공-거부의 반응이 크게 느리지 않고, 애착 저집단에서만 성공-거부의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평균시간이 상쇄되어 나온 결과이다. 이는 몇가지 점에서 논의해 볼만 하다.

첫째, 남자와 여자의 반응차이는 남녀에게 기대하는 부모나 사회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애착 고저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대학생이 된 남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와의 애착여부가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인 애착연구들 중에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과 보호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줄어들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런 경향성은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Davies & Windle(1997)에 의하더라도 청소년기부터 남자들은 가족의 영향을 덜 받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우울이나 가족불화와 같은 가족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화를 통해 남자들은 독립과 경

쟁에 가치를 두게 되는데 비해, 여자들은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Chodorow(1989)는 이런 남녀차이가 어머니와의 대상관계적 경험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리와 독립을 장려하므로, 남자는 접촉이 많지 않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기 위해 남성역할을 지위동일시하면서 독립해 가는 반면, 딸의 경우 어머니는 분리시키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아 역시 어머니를 매일 접하면서 개인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아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침투적인 자기(permeable self)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들의 경우 애착고저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남자대학생들은 애착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성공/실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남자들의 경우 성공-거부에 대한 반응은 다른 조건에 비해 느리지만, 성공-수용, 실패-수용, 실패-거부 반응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이런 경향성은 애착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점화실험들에 따르면, 점화 단어와 목표단어가 모두 긍정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경우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e Houwer, Hermans, & Spruyt, 2001;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정적인 정서의 활성화는 기존의 일반지식구조에 의존하여 세부처리를 하지 않지만, 부적인 정서의 활성화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며 세부처리에 인지용량을 할당함으로써 반응시간이 느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화의 긍정성 효과와 더불어 인간의 자기긍정성 현상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성공-수용의 조건은 긍정적 자극이 두개가 연합되므로 다른 두 조건에 비해 빨라야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남자들에게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성공'이 반드시 정적 정서와 연합되고 '실패'는 부정적 정서와 연합되어 반응시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능성은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는 남자들의 성취를 강조해 왔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취의 압력을 더 많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취에 대한 기대는 '성공'과 관련된 인지표상에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압력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가능성은 어머니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남자 대학생들의 인지표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휘숙(2002)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분리-개별화를 이룬 경우 가장 적응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장휘숙, 2005). 즉 남자 대학생들은 독립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더 이상 사회나 부모가 이상으로 삼는 성공도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여자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성공실패 도식

연구 2에서 여자 대학생들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애착 고집단은 성공-수용에 대한 반응이 애착 저집단보다 느렸지만, 성공-거부, 실패-수용에 대한 반응은 빨랐다. 한편 실패-거부에 대한 반응은 가장 느렸다. 반면 애착 저집단은 고집단에 비해 성공-수용에 대한 반응과 실패-거부에 대한 반응이

빨랐고, 실패-수용에 대한 반응이 느렸으며, 성공-거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느렸다. 이는 애착 고집단은 성공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수용과 지지를 받아왔지만, 애착 저집단은 성공시에만 수용되고 지지받는 조건적인 지지를 경험해 왔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들과 달리 여자 대학생들은 애착유형에 따라 성공/실패에 대한 도식을 다르게 표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Bowlby는 애착대상이 근접유지, 안전한 안식처(safe heaven), 안전기지(secure base)의 세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애착 고집단이 실패-수용 반응이 빠르고, 실패-거부 반응이 느리게 나온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도 이러한 세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패 시에도 어머니는 수용해주며, 안전한 안식처나 안전기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애착이론에 따르면, 안정애착은 인정과 정서적 개방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ikulincer와 Orbach(1995)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린시절의 분노나 슬픔, 불안이 회상하게 했을 때, 안정 애착인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쉽게 인출해 냈다. 본 연구에서 성공-거부에 대한 반응이 애착 고집단에서 빠르게 나온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성공-거부는 성공도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성공했을 때 당면하는 사회적 조건과 가족 내에서의 반응은 때때로 우려와 염려다. 전통적으로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남자에게는 사회적 역할을, 여자에게는 가정 내의 정서적 역할을 할당해 온 사회적 조건은 여자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오지 않았다.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만, 어머니들은 자신의 딸의 성공에 대해 염려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숨겨진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빠른 반응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일찌기 Horner(1972)는 여성들에게 성공회피동기가 있다고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은 여성들에게 성공회피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당면한 사회적 조건이 그런 반응을 나오게 했음을 입증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안정 애착인들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자신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과거 경험을 자동적으로 드러낸 것일 수 있다.

반면 애착 저집단의 경우에는 성공/실패 도식이 성공-수용, 실패-거부의 조건적 지지와 관련되어 표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집단에게는 성공-거부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합이었을 것이고, 가장 느린 반응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Harter(1998)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나 직접적인 영향력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숨기고 거짓된 자기에 몰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바꾸며, 특히 조건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휘숙(2005) 역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어머니와의 갈등경험이 덜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여자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요구에 더 순응적이고, 거짓 자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런 현상이 여성들의 애착유형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안정적인 애착

을 형성한 여성들의 성공/실패 도식은 보다 열려있어서 성공은 반드시 수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에도 수용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애착이 불안정한 여성들의 경우, 성공-수용, 실패-거부라는 엄격한 구조의 표상을 형성하고 성공에 따르는 거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은 여성이 성공을 했다고 해도 수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착 저집단 여성에게도 성공의 조건에서는 어머니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 주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자녀 성공을 위한 교육열과 투자가 심각한 한국 상황에서, 어머니의 성공기대를 강하게 반복 학습해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성공/실패, 수용/거부가 어떤 연합망으로 표상되어 있는지를 이중점화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성공지향적인 한국의 대학생들의 성공/실패 도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자동적인 반응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질문지나 명시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밝혀내기 어려운 자동적인 반응을 밝혀냄으로써, 실패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시사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들이 복잡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밝

1) 이에 대해 애착 고집단 여성의 경우 인간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취를 덜 중시하는데 비해, 애착 저집단 여성의 경우 인간관계보다는 성취를 더 중시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허내고자 했던 애착체계와 성공/실패, 수용/거부의 연합망구조를 이중점화기법을 통해 알아 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설계의 복잡성 때문에, 연구 1에서 애착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연구 2에서는 애착유형의 효과를 알아보고, 따라서 애착활성화와 애착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 두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육정 (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 (2001).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구조: 성별단서, 범주전

형성 및 성별 선호도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49-68.

이정모 외 (2003). *인지심리학(개정판)*. 학지사.

장휘숙 (2002). 청년 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2.

장휘숙 (2005). 청소년-어머니 갈등과 관련변인들: 성별, 연령, 신체성숙수준, 주관적 연령,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97-113.

조혜자, 방희정 (2004).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 무엇이 여성에게 우선적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81-201.

Alicke, M.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Armsden, G.,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 245-271.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Baldwin, M. W., & Sinclair, L. (1996). Self-Esteem and "If...then" contingencies of interpersonal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30-1141.

- Baldwin, M. W., Carrell, S. E., & Lopez, D. F. (1990). Priming relationship schemas: My advisor and the pope are watching me from the back of my min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435-454.
- Baldwin, M. W., & Meunier, J. (1999). The cued activation of attachment relational schemas. *Social Cognition*, 17, 209-227.
- Baumeister, R.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pp. 680-740). NY: McGraw Hill.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Calvo, M., & Castillo, M. (2005). Foveal vs. parafoveal attention-grabbing power of threat-related information. *Experimental Psychology*, 52(2), 150-162.
- Chen, S., & Boucher, H. C., Tapias, M. P. (2006) The relational self revealed: Integrative conceptualization and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life. *Psychological Bulletin*, 132(2), 151-179.
- Chodorow, N. (1989).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avies, P. T., & Windle, M. (1997). Gender-specific pathways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discord, and adolescent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4), 657-668.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weck, C. S., Higgins, E. T., & Grant-Pillow, H. (2003). Self system give unique meaning to self variables. In M. R. Leary & J. P. Tangney(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Y: Guilford Press.
- Glassman, N. S., & Andersen, S. M. (1999). Activation transference without consciousness: Using significant-other representations to go beyond what is subliminally giv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146-1162.
- Greenwald, A.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1038.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R. Lerner, K. Deanne, R. Siegler, N. Eisenberg, I. Segel, & A. Renning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553-620). NY: John Wiley & Sons.
- Horner, M. S. (1972).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hievement-related conflicts in women.

-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57-175.
- Huston, A., & Ripke, M. (2005). Experiences in middle childhood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A. Huston & M. Ripke(Eds.), *Development contexts in middle childhood: Bridge to adolescence and adult*. UK: Cambridge Univ. Press.
- James, W. (1890/1983). *Principles of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 Kim, U., & Park, Y. S. (2003).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pp. 171-195).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41-253.
- McGowan, S., (2002). Mental Representations in Stressful Situations: The Calming and Distressing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52-161.
- Mikulincer, M., & Arad, D. (1999).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Cognitive Openness in Close Relationships: A Test of Chronic and Temporary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10-725
- Mikulincer, M., & Florian, V. (2000).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ons to mortality salience-Does attachment style regulate terror management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60-273.
- Mikulincer, M., Gillath, O., & Shaver, P. (2002). Activation of the attachment system in adulthood: Threat-related primes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mental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fig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881-895.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4). Security-based self-representations in adulthood: Contents and processes.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159-195).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Gillath, O., & Nitzberg, R. (2005). Attachment, Care-giving, and Altruism: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Increases Compassion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17~839.
- Morrison, T., Goodlin-Jones, B., & Urqueza, A. (1997). Attachment and the represent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in adulthood. *The Journal of Psychology*, 131, 57-71.
- Neely, N.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 264-336). Hillsdale, NJ: Erlbaum.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6.
- Pickett, C., Bonner, B., & Coleman, J.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543-562.
- Pollatsek, A., & Rayner, K. (1989). Reading. In M. I. Posner (Ed.),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IT Press.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pp.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akellaropoulo, M., & Baldwin, M. W. (2006). Interpersonal cognition and the relational self: paving the empirical road for dialogical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Dialogical Science*. 1, 47-66.
- Sereno, S. C., & Rayner, K. (1992). Fast priming during eye fixations in read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s and Performance*, 18, 173-184.
- Winnicott, D. W. (1965). *The family and individual development*. Great Britain: Tavistock Publications.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ic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Vol. 18,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pp. 239-25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1 차 원고 접수일 : 2008. 01. 04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2. 19

##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mplicit representations of 'success/failure' by dual-priming task**

**Hyeja Cho      Hee Jeong Bang      Sook Ja Cho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We investigated the implicit representations of success/failure associated with mother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mother' or 'basket' as a context prime and 'success' or 'failure' related words as second primes for 100ms, and were asked to make lexical decisions about 'accept' or 'reject' related words and non-words after 150 ms (SOA 250ms). Results revealed that lexical decision times on the mother condition were more rapid than the ones on the basket condition, and lexical decision times on the acceptance condition were more rapid than the ones on the rejection condition, and female participants showed shorter times than male students did. In study 2, we divided participants into four groups by gender and attachment styl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uccess/failure and acceptance/rej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quickest lexical decision times on the success-acceptance condition, and slowed times on failure-acceptance, failure-rejection, and success-rejection condition in order.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attachment group were found in males, but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s were found in females. In highly attached females, lexical decision times in success-acceptance condition were not differed from ones in success-rejection condition, and slowed times in failure-rejection condition. Low attached females showed very rapid times in success-acceptance condition, but very slow times in success-rejection condition.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lf-positivity and success/failure scheme depending on gender and attachment styles.

*Key words : attachment style, success/failure scheme, lexical decision task, self-positivity, dual priming task.*